

미래의 노벨문학상을 위한 도전

한울안중, 2024년 글쓰기 관련 26개 대회에서 52회 수상

한울안중학교(교장 변흔갑)는 2024년에만 글쓰기와 관련해 26개 전국 대회에서 52개의 상을 받았다.

2학년 이준용 학생이 '제31회 포석 조명희 백일장'에서 중등부 장원을 수상해 충청북도 교육감상을, 1학년 김정환 학생이 '전국 학생 논개 시 짓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상을, 2학년 이현서 학생이 '제27회 요산 김정환 백일장'에서 중등부 운문 부문 장원을 수상해 부산광역시 교육감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규모의 여러 대회에서 교육감상만 세 번 이상 수상했다. 전교생이 76명인 작은 학교가 거둔 놀라운 성과다.

한울안중은 교무실 앞 복도에 글쓰기 대회 포스터를 게시해 학생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글쓰기 수업을 통해 수시로 학생들의 글을 피드백하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글쓰기를 지향하고 있다.

학생들의 글쓰기를 지도하고 있는 심규성 교사 또한 학생들과 함께 여러 글쓰기 대회에 참가해 '제1회 전국 영광찰보리 창작시 대회'에서 대상을, '제39회 죽계백일장'에서 장원을, '제73회 개



천예술제'에서 시 부문 장원을, '제27회 요산 김정환 백일장'에서 대학일반부 통합 장원을 수상하는 등 여러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올해에만 14개의 상을 받은 2학년 이현서 학생은 "글쓰기를 통해 내가 성장하고 있음을 많이 느낀다. 꾸준히 노력하면 큰 대회에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상금으로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사서 볼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도

꾸준히 글을 쓰겠다."고 말했다.

변흔갑 교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영향 때문인지 전국에서 글쓰기 열풍이 불고 있다. 우리 학교만의 문화, 예술, 체험 행사가 학생들의 감성을 키우는 데 큰 힘이 된 것 같다. 글쓰기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도록 항상 응원하고 격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한울안중학교〉

'용산 LIFE 프로젝트 러닝페어'

용산초, 개념기반 탐구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 공유의 장 마련

대구용산초등학교(교장 이석수)는 지난 18일(금) '용산 LIFE 프로젝트 러닝페어'를 개최했다.

용산초는 2024학년도 대구 미래학교로 선정되어 인성(Love), 세계시민(International), 문화예술(Festival), 생태(Environment)를 주제로 개념기반 탐구 프로젝트를

학년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주도적인 탐구가 살아있는 교실 수업을 실천하고 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러닝페어'는 1~4학년은 각 교실과 복도에서, 5~6학년은 강당에서 개념기반 탐구 프로젝트 결과를 전시·발표하며 깊이 있는 배움의 결과를 함

께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생태·환경을 주제로 ▲5학년은 생활 속의 환경문제에 대해 탐구하고 실천 방안을 찾아보았으며, ▲6학년은 지구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필요한 환경단체의 방향과 역할을 탐색해 보았다.

발표회를 통해 학생들은 주



도적으로 탐구해 온 프로젝트의 과정을 선보였고, 발표자 및 참관하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함께하는 질답 활동을 통해 깊이 있는 배움이 가능했다. 〈자료제공:대구용산초등학교〉

CHU

온리U 드라마
드라마와 입 맞CHU다

해외(유럽)드라마 전문 채널

디지털 95편